

**벤처 관련 정책**

● **중소기업 A/S 고민 돌파구 '중소기업공동A/S센터'**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10월 20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기업공동A/S센터' 발대식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청은 지금까지 A/S콜센터에서 진행해온 A/S지원 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A/S수요가 가장 많은 5개 제품군을 선정했다.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전국을 상대로 A/S시행이 가능한 A/S대행사를 공모절차를 거쳐 제품군별로 1개씩 선정하여 A/S대행사가 직접 A/S를 해주게 된다.

'중소기업공동A/S센터'의 5개 제품군은 웰빙가전, 일반가전,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 A/V군 등이며, 선정된 5개 A/S대행사는 전국에 167개의 A/S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국의 'A/S대행 공식 지정점'에서 편리하게 A/S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동A/S센터' 사업은 품질은 우수하나 자금, 인력 등의 부족으로 자체 A/S체제를 갖추지 못해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A/S콜 서비스, 전국적 A/S망 구축, A/S전산시스템, A/S교육 등 A/S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국적 A/S 서비스망 구축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A/S운영 비용절감, 제품 판매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사업에는 80여 개의 제조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100개 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02-6678-9320~4)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 **중기청 '보안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산업보안 기술개발 사업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및 관련 H/W, S/W 등의 개발지원을 위한 2009년도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에 33개 과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인프라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보안기술을 개발, 널리 보급·확산시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물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37개, 2008년 38개 과제 등 75개 과제에 6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금년에는 97개 신청과제 중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통제시스템 같은 바이오기술(BT)과 DDOS 공격 해킹 탐지 복구 시스템 같은 정보기술(IT) 등 전문핵심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33개 과제를 선정, 업체당 평균 87백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이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이 중소기업에 널리 보급·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안시스템구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중기중앙회·농식품부·업무협약(MOU)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가 농식품산업 및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지난 10월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대회의실에서 장태평 장관과 김기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체계 마련 등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지원 △농림수산식품 관련 녹색 중소기업 발굴 육성 △공동연구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농식품산업 및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앞서 5월에 열린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그 동안 농식품부와 중기중앙회는 간담회 시 제기된 중소기업의 현장견의를 중심으로 중기중앙회 농수산물분과위원회 개최(7. 21) ⇒ 中企人/농식품부 실무자 1:1 심화토론(9. 22) ⇒ 中企人/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 면담(9. 24)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등 새로운 방식의 '정책간담회 모델'을 제시하여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수 중심의 방어적 정책기조를 수출확대, 정책대상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 공세적으로 전환해 가는 농식품 정책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국내 식품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결국은 식품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강한 농식품산업 만들기'의 핵심이다"고 강조하였다.

● ETRI, 베트남에 지상파DMB 상용서비스 진출

세계 최초로 지상파DMB 개발에 성공, 국제표준을 확보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지난 10월 21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베 방송통신 전시회 및 방송통신협력 워크숍에서 ETRI 연구소기업인 (주)디엠브로(DMBro)와 함께 '지상파DMB 서비스' 신기술을 전시, 발표하고 현지에서 베트남 국영방송국인 베트남 TV(VTV)와 지상파DMB 서비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미국, 일본, 유럽형 지상파DMB를 제치고 한국형 DMB를 선택한 배경은 ETRI의 기술이 우수한데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타 기술대비 우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어, 타 국가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상파DMB의 베트남 진출은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에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ETRI의 해외기술이전 사업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말기, 서비스, 장비 등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TRI가 이번 MOU를 통해 베트남에 제공될 '지상파DMB Total Solution 기술'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지상파DMB 유료화 서비스를 위한 수신제한시스템(CAS) 기반의 유료 인증 및 가입자 관리기능 등을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핵심기술이다.

● 생명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용 생물소재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원장 박영훈) 생물산업기술연구센터 AI제어소재연구단 이우송 박사팀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인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 사료첨가제 및 식의약품 생물소재 개발'의 국책과제를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생약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용 생물소재'인 KW-100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활성물질 KW-100에 대해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를 제품화하기 위하여 지난달 한국스테비아(주)(대표 정일환)와 기술이전실시계약(기술료 300억 원, 선금금 30억 원, 경상실시료 총매출액의 3%)을 체결했다.

생약 추출물, 분획물 및 이로부터 분리된 물질인 KW-100은 바이러스 증식에 관여하는 뉴라미니데이즈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

를 나타내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스페인독감 유래 바이러스에 대해 뛰어난 예방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므로 본 연구개발에 따른 조성물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기연구원, 최근 핵심성과 담은 'KERI 대표 기술21선' 발간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유태환)은 최근 10여년 간 발굴한 우수한 성과와 기술들을 엄선한 'KERI 대표기술21선'을 발간했다.

KERI 대표기술 21선은 전기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성과들 가운데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기술의 혁신성과 기술 개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62페이지로 구성된 책자에는 자기부상 기술, 국가 기간시설물 전식 대책 기술, 한국형 배전자동화 시스템 기술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중대형 전기기술과 탄소나노튜브 투명전극 기술, 초전도 전기에너지 저장 기술,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기술 등 산업계 파급효과가 큰 첨단 융복합 전기기술 개발 관련 21개 연구성과가 사진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개돼 있다. 해당 전기기술 용어해설과 논문정보 등 관련 주요정보도 부록으로 함께 담았다. KERI는 곧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홈페이지 방문자들도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보협력실 송대익 실장은 "KERI의 대표 연구성과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을 느껴 대표기술 21선을 발간하게 됐다"며 "각종 전시회, 기술설명회 등에서 KERI의 전문분야와 기술력에 관한 소개자료로 연구원 홍보책자와 함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자치단체

### ◎ 서울시, 사회적기업 1천 개 발굴한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기업' 1천 개를 신규 발굴,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 250개 기업, 7천여 개 일자리 신규 창출을 시작으로 2011년엔 350개 기업의 9천8백여 개, 2012년엔 400개 기업 1만1천2백여 개를 새로 만드는 등 3년간 총 1천 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총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은 소비 중심의 기존 복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방안으로서 내년도 서울시가 추진할 일자리창출대책인 '서울형 신고용정책'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재정, 경영, 인력 등에 대한 다각도로 지원을 통해 갖춰진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시와 산하기관 등의 조직을 활용,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 들어간다. 특히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증제도'와 별개로 추진돼 잠재력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최대

총 3억여 원의 재정 및 인력 지원이 주어진다. 경영조직 관리 및 경영·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각종 운영에 대한 지원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 충남테크노파크, 7개 벤처기업 성공스토리 도서 출판

충남테크노파크(원장 김학민)가 지난 10월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일곱사장이야기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하여 성공한 7개 벤처기업의 성공스토리를 전국 최초로 발간한 책 '일곱 사장 이야기'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 발간된 이 '일곱 사장 이야기'의 주요내용을 보면 ▲창업 7년만에 코스닥에 상장한 LCD장비 개발업체 에버테크노(주) 정백운 대표 ▲입주 6년 만에 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미백화장품 업체 (주)롯데 장동일 대표 ▲방열부품제작업체인 티티엠(주) 최유진 대표, ▲LCD장비업체 (주)디바이스이앤지 최봉진 대표 ▲LCD 설계 (주)드림이의 최애희 대표 ▲스톱모션 제작업체 (주)투머로우의 한정석 대표 ▲LCD 검사장치 (주)비원테크 김억기 대표의 가슴 뭉클한 성공담이 실려 있다.

## 은행권

### ◎ 수출입은행, 베트남 투자개발은행 앞 5천만 달러 수출신용한도 공여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동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투자개발은행과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신용공여계약(Interbank Export Credi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베트남투자개발은행은 5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베트남 수입자에게 우리나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게 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한-ASEAN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

체결로 베트남의 수입자들이 한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융 여건이 개선되어,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 10월 현재 베트남에 총 30 사업 앞 8억3천4백만 달러를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김 행장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호치민-쑹롱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4천6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베트남 정부와 체결하기도 했다.

● 신한은행, '신한 녹색성장대출' 출시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탄소·녹색성장산업을 지원하고자 녹색성장기업에 필요한 여신 및 부대 서비스를 우대 제공하는 '신한 녹색성장대출'을 출시했다.

'신한 녹색성장대출'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 녹색성장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녹색금융상품이다.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의 그린에너지 산업을 영위하

는 기업과 저탄소·고효율 신성장 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폭넓은 개념의 녹색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신용등급, 담보비율 및 녹색성장 유망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최고 1.0%의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센터감정평가수수료 등 수수료 우대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운전 자금의 경우 3년 이내며, 정부 및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최장 15년, 그 외는 최장 10년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녹색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사회책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 외 기 술

● 반스앤노블, e북 선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반스앤노블(Barnes & Noble)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자사 브랜드의 전자책을 이달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반스앤노블은 이제 이미 킨들(Kindle)을 판매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e북 리더를 출시한 소니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스앤노블은 지난 7월 PC, 맥, 아이폰, 아이팟, 블랙베리 등에서 읽을 수 있도록 전자도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서점을 연 바 있다. 또, 2010년 초에는 플라스틱 로직(Plastic Logic)의 전자책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T전문 블로그인 기즈모도(Gizmodo)는 11월 출시될 반스앤노블의 전자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할 것이라고 익명의 관계자 말을 빌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반스앤노블 전자책은 가상 키보드를 탑재해 터치 입력이 가능한 6인치 스크린을 장착했다. 또한, 콘텐츠 다운로드를 위한 무선 연결도 지원한다. 이 단말기는 애플의 전 디자인총괄책임자였던 로버트 브루너가 맡아 디자인했고,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내 손안의 사전 '위키리더' 출시

이제 인터넷 백과 사전인 위키피디아를 전용 단말기로 검색할 수 있다. 인포메이션위크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오픈소스 모바일 업체인 오픈모코(Openmoko)는 손바닥 크기의 위키피디아 휴대형 버전인 위키리더(WikiReader)를 선보였다. 위키리더는 위키피디아의 오프라인 버전이다. 작은 마이크로 SD카드에 정보를 저장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PC나 노트북PC에 SD카드를 꽂기만 하면 위키피디아와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문 백과사전 정보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위키리더는 흑백 터치스크린 화면과 샌드위치 형태의 폼팩터를 갖추고 있으며, 언어 교육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이 용자는 인터넷 상에서 추가된 위키피디아 내용을 무료로 받아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한 기기 하단에 있는 서치 버튼을 클릭하면 쿼리 자판이 화면에 표시되므로 자료검색도 쉽다. 전력소모가 적은 모노크롬 액정을 채택, AAA 배터리 2개로 5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진다.